

요약

최근 기업경영과 투자부문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보험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금융산업 국제기구로는 UNEP-FI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보험의 원칙(PSI)을 통해 보험산업과 SDGs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음. 최근 미국은 자연재해 피해 확대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SDGs의 중요성이 재점화되기 시작함. 보험산업은 기후변화 등과 같은 SDGs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업경영과 투자부문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보험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¹⁾
 -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감소, 평등과 인권 향상, 세계경제 성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과 상호 연관성이 높음²⁾
 - 연금 및 장애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며, 농작물보험은 식량수급의 안정화, 건강보험 등은 인간의 건강과 웰빙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그 외 일반보험 등은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거대 자연재해로부터 리스크를 헤지하는 보험상품으로 SDGs를 지원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금융산업 국제기구로는 UNEP-FI(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Financial Initiative)³⁾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보험의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을 통해 보험산업과 SDGs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음
 - PSI는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국제 협약체제(Global Framework)를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 보험료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14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이를 채택하고 있음
 - UNEP-FI는 ‘지속가능한 보험포럼(Sustainable Insurance Forum: SIF)’을 소집하여 보험감독기관에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금융정책과 규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⁴⁾

1) Society Of Actuaries(2020. 12), “Sustainable Insurance: A Chang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ndscape”

2) SDGs(<https://sdgs.un.org/goals>)는 2030년까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분야에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유엔의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임

3) UNEP-FI는 2021년 1월 기준 세계 378개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투자회사)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성장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4) UNEP-FI에서 소집한 SIF는 전 세계 보험감독자 및 규제기관의 네트워크로 회원자격은 국가차원의 규제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회의와 함께 개최됨

- SIF의 주요 활동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성기구(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FSI)와 협력하여 보험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기후변화 위험⁵⁾에 대해 알리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TF(TCFD)⁶⁾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함
- 이런 UNEP-FI 활동은 유럽지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회계처리 등에 주도적인 논의를 이끌어왔음⁷⁾

〈표 1〉 지속가능한 보험의 원칙(PSI)

원칙	내용
원칙 1	보험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것
원칙 2	사업파트너 및 고객들과 협력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원칙 3	정부, 규제기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
원칙 4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

자료: <https://www.unepfi.org/psi/the-principles/>

○ 최근 미국은 자연재해 피해 확대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SDGs의 중요성이 재점화⁸⁾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결과⁹⁾,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세대는 밀레니얼 및 Z세대가 79%인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각각 66%, 55%로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보험제도인 연방홍수보험제도는 최근 보험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보조금이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국제 금융기관의 모임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에 새로운 대책이 없으면 2100년까지 물적 손해만으로 세계 GDP가 최대 25%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¹⁰⁾
- 그 외 기후변화 문제와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어 미국은 코로나 재난을 계기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음

○ 보험산업은 정부, 개인, 기관들과 함께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후변화 등과 같은 SDGs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5) IAIS(2020. 7), "Issues 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TCFD"

6)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라는 4가지 영역의 11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됨

7) UNEP-FI는 313개의 은행, 투자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미국은 13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음

8)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조치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소유 부지 내 석유·석탄 사용을 압박하는 등,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투자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9)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6/24/millennial-and-gen-z-republicans-stand-out-from-their-elders-on-climate-and-energy-issues/>

10) NGFS(2020. 6), "NGFS Climate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